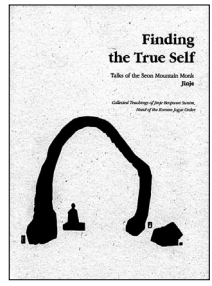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영문 선법어집 출간

종정 영문 법어집
(Finding the True Self)
진제 스님 지음 | 로터스랜턴 펴냄 | \$22.95



간화선 세계화에 앞장서 온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영문 법어집 (Finding the True Self)를 펴내 한국 정통 간화선을 배우려는 서구인들에게 유용한 선 수행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영문 법어집 출간은 (Open the Mind, See the Light(마음을 열어 빛을 보다))에 이어 두 번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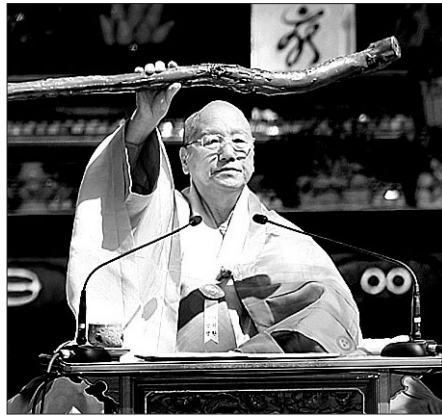
이번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는 조계종이 최상승 수행법으로 여기는 간화선과 바른 참선 수행법에 대한 소개로, 소참법문, 질문 및 답변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또 하나는 역대 조사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스님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정통 간화선 참법을 세계인들에게 여실히 증명해 보여준 것이다.

책 속을 들여다 보면 진제 종정 스님이 사부대중에게 내린 각가지 선법문들과 미국서 실천 법문들이 소개돼 있다. 참선에 임하는 자세를 비롯 수행자의 본분, 상제 한 가르침을 소참법문과 문답 형식으로 담

았다. 특히 이 책에서 눈길이 가는 것은 해방신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폴 니터 교수와의 대담이다. 또한 세계적인 물리학자이면서 전 세계 유대교의 정신적 스승인 랍비 잭 뱌포라드와의 대담도 수록됐다. 이 두 글들에서는 간화선과 진제 종정 스님의 법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법어집 표지와 본문 중간사이에는 선(禪) 관화가로 유명한 통척 스님의 관화 작품들을 넣어 서구인들에게 한국의 불교문화를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번 법어집은 법어번역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출신의 일본 조동종 쿤은 프란츠 스님이 전체적인 번역과 편집 책임을 맡았고, 한국 불교계에도 잘 알려진 불교계 석학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가 서문을 썼다. 세계적인 불교잡지사인 (부다달마) 부편집장이기도 한 프란츠 스님은 진제 종정 스님의 법문 원고를 처음 접하고 발심해 만사를 제쳐두고 수개월간 번역과 편집작업에 몰두했다는 후문이다. 이외에도 이번 번역에는 한국불교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홍연주, 진우기, 박희원씨 등 전문번역가들도 함께 작업했다.

진제 종정 스님은 팔순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 미국을 세 번이나 방문해 법문하는 등 한국의 간화선을 세계화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다. 특히 2010년 말 세계적인 신학자 폴니터 교수와의 대담을 시작으로, 2011년 가을에 미국 뉴욕 리버사



선법문을 하고있는 진제 스님

국내의 법회서 설한 간화선 법문

수행자 본분 및 가르침 문답 구성

미국계 일본 스님 프란츠 책임 번역

이대 교회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 선대법회'를 열었다. 이어 2012년 초에는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60주년 행사에 초청받아 법문했다. 또한 그해 가을에는 UN세계종교지도자협의회 초청으로 UN플라자에서도 법문하는 등 그의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한편 진제 종정 스님은 이번 출간한 영문 법어집을 미국과 유럽의 대학과 주요 도

서관에 기증해 세계인들에게 한국 간화선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특히 이 책은 세계 최대 미국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만일 아마존쪽 심사를 통과해 공식 판매가 결정된다면, 한국불교사상 처음으로 판매되는 한국불서가 된다.

이 책의 저자인 진제 종정 스님은 1953년 해인사에서 출가해 석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58년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7년에는 향곡 선사로부터 법을 인가 받음으로써 경허, 혜월, 운봉, 향곡 선사로 전해 내려온 정통법맥을 통해 석가여래부촉법 제79대 법손이 됐다. 이후 1971년 부산 해운정사를 창건했으며, 동화사 금강선원 조실,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 조계종 원로의원 등을 역임했다. 2004년 조계종 대종사에 올랐고, 이어 2012년에는 제13대 조계종 종정에 취임했다. 현재는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도 겸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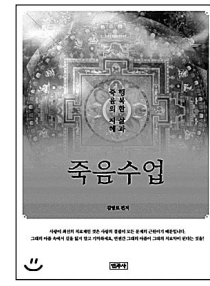
진제 종정 스님은 전문을 통해 "사상과 종교를 초월해 만민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법인 간화선 참선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깨달음의 최상 요체인 간화선 참선법을 만민에 선양함으로써 지구촌 모든 인류가 화목하고 행복하며 평화로워지길 바라는 간절한 원력으로 이 책을 세계인들에게 권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모든 생명체는 소중한 우리의 가족 큰 마음으로 모든 중생 가슴에 품자

죽음수업

김영로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5천원



올 4월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로 죽음에 대한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야말로 살아 있다 해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었다 해도 죽은 게 아니었다.

이처럼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제 죽음수업은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는 데에만 집중하다가 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들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맞이하게 된 상실감과 그 고통은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른다.

독보적인 영어교재로 유명한 영어순해 저자 김영로 선생도 4년 전 아들을 잃었다. 그는 자식 잃은 슬픔을 성자들의 말씀과 수행을 통해 극복하면서 티베트 금강승 수행자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 책이 더욱더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것은 수행체통 통해 거듭난 저자의 깨달음이 책 속 단 어 한 글자마다 영글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선업은 기쁨을, 악업은 고통을 가져온다는 인과 법칙을 통해 알고 보면 모든 생명체는 우리들의 가족이므로 잃은 가족을 사랑했던 그 마음보다 더욱더 큰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을 가슴에 품으며 살자"고 조언한다. 고통의 근원인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 고통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이 열리는 행운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이 책은 저자가 평소 수행 하면서 곱씹어 읽고 마음에 새기던 말씀들, 즉 부처님과 린보체들은 물론 공자, 루미, 슈바이처, 피카소, 베게트, 프랭클, 프란치스코, 스티브잡스 등 동서고금에 회자되는 위인들의 주옥같은 말씀들 가려 뽑고 이에 해설을 덧붙였다. 저자의 빛나는 안목이 담겨 있어 수행에 관심 가진 이들 이외에도 현대 가족과 친지, 이웃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이들을 치유하고픈 이들에게 필독서가 될 것 같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말한다. "제가 좋아하는 만트라 가운데 하나는 집중과 단순함입니다. 단순한 것은 복잡한 것보다 더 어렵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해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해야 그것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결국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기에 도달하면, 산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 책의 제목은 죽음수업이지만, '행복한 삶과 죽음의 지혜'라는 부제에서도 옛

볼 수 있듯 진정한 삶을 위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책이다.

총 6장인 이 책은 한마디로 성자들의 축복이 가득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저자가 수많은 성자들의 주옥같은 말씀 중에서 가려 뽑은 내용은 읽기만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 진정한 인생의 성공 지름길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과 행복 자원"을 주제로 한 첫 장은 지혜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깨달음의 자원이며, 행복 자원이며 고통이 오히려 축복임을 알고 고마운 마음으로 맞는 것이 행복 자원을 키우고 불행 자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마음 확장 행복 확장" 편인 제 3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순간 남들이 고통 받게 만드는 것을 그만두는 이치를 깨닫게 해 주고, 자기의 마음을 확장하고 행복을 확장하는 법, 마음 키우기 수행법을 조목조목 알려 준다.

죽음 대하는 올바른 자세 소개해

부처님 등 동서양 위인 말씀 선별

마지막 제6장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 편에서는 임종의 정광명 바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의식이 몸에 남았을 때와 떠나갈 때 시간별 날짜별로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상히 소개한다. 특히 화신으로 성불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는 재생의 바르도(대략 30일~49일)에서 관세음 수행, 육자진언을 통해 소리와 공의 합일 수행을 하면 즉시 바르도에서 해탈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해탈로 가는 길은 수행뿐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르도에서는 단 하나의 긍정적인 생각의 힘이 당신의 깨달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의 심연으로 끌고 갈 수 있지요. 이 또한 명심하고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모든 것은 결국 당신 자신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맑게 깨어있으면서 지혜롭게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고 당부한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저자의 말을 통해서도 이 책 (죽음수업)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수업'임을 알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의 힘, 나 자신의 결정과 선택, 맑게 깨어 있기,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죽음, 그 순간에도 필요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더욱 필요할 말이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화엄사상 요체인 법성계 수행적 입장에서 풀이

법성계 강해

의상대사 지음 | 김상백 풀이 | 운주사 펴냄 | 1만2천원



《법성계》는 통일신라 시대 해동 화엄종의 조조인 의상대사가 화엄경을 공부한 뒤, 그 내용을 210자로 요약해 송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책은 그렇듯 화엄사상의 요체를 드러내고 있는 《법성계》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풀이하고 설명했다.

의상대사는 황복사에서 출가해 원효를 만나 같이 당나라 유학을 간다. 중간에서 원효대사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깨치고 신라로 돌아왔으나, 당나라로 건너간 의상은 화엄종의 2조인 지엄 스님 문하에서 공부했다. 이때 중국 화엄종 3조인 현수 법장과는 동문이 되었다. 의상대사는 《화엄경》 80권을 다 공부하고, 화엄사상의 핵심

요체를 함축해 나타낸 《법성계》를 지어 스승에게 인가를 받았으며, 계송을 그림으로 배치한 《화엄일승법계도》를 그렸다. 도안은 7년 30송으로, 도합 210의 글자를 도인으로 배치했다. 이를 《해인도》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법성계》는 해동화엄의 발원을 이루는 명문으로서, 이후 한국불교가 화엄사상을 중시하는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계송이다. 그래서 의상대사는 공부를 다 마친 후학들에게 《법계도》를 한 장씩 선물하곤 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법성계》 첫머리에 의상대사는 《법성계》를 지은 동기에 대해 '이(理)에 의하고 교(敎)에 근거해 간단한 반시(樂詩)를 만들어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그 이름마저 없는 참된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했다. 이 책의 저자는 《법성계》를 대승 보살도에 입문하는 입학자이자 동시에 윤회를 마치는 졸업장가도 같다고 평한다.

이 책은 화엄사상의 요체를 담은 《법성계》를 이론적, 교학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철저히 실천적, 수행적인 입장에서 풀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것은 이 책의 저자가 평생 참선수행을 한 노승의 재자재자 이기도 하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불교를 배우는 목적이 결국에는 번뇌에 쌓인 현실을 타파하고 해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경전과 논서는 길을 가리키는 안내자 또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책은 의상대사가 함축한 화엄의 웅혼한 세계를 수행의 입장, 특히 참선수행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풀이한 것이다. 그렇다고 불교의 교학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계송에 스며 있는 복잡한 교학을 알기 쉽게 정리해 그 의미를 수행의 입장에서 명쾌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예컨대 《법성계》 첫 구절인 '법성원유 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에서 '법성'을 풀이하면서 이를 한 단어로 볼 경우에는 우리의 본래 성품인 진성으로, 이는 곧 간화선서 화두를 타파한 경지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법성을 법과 성으로 나누어 보면 법은 객체인 불법으로서 객체이자 용이요 사라 할 수 있고, 성은 주체로서 본성, 체, 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법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론이나 대립적인 이분법을 떠나 수행을 통해 중도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깨달은 데만 그치지 말고 깨달음 이후 보림으로서 바라밀행을 통해 그 깨달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 이 책은 단순히 《법성계》 자구를 분석하고 논리적, 교리적으로 그에 합당한 의미를 해석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진리에 따라 살아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김주일 기자

번역자 김상백은?

1961년에 태어나, 중앙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1학년 때 선배를 따라 경북 풍기 성혈사에 갔다가, 당시 주지인 봉철 스님과 인연을 맺고 시정(是情)이란 불명을 받았다. 그리고 20년이 훌쩍 지나서 봉철 스님과 인연이 다시 이어졌고, 2011년 스님이 입적하실 때까지 가르침을 받았다. 저서로는 《행복을 쫓아가지 마라》(극락도 불태워 버려라)가 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뒹) 8cm]

기반방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나만의 완성세계 기gan
기gan
기gan
기g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면 기gan
수련할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gan
나만의 완성세계 기gan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르던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분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분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석외전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